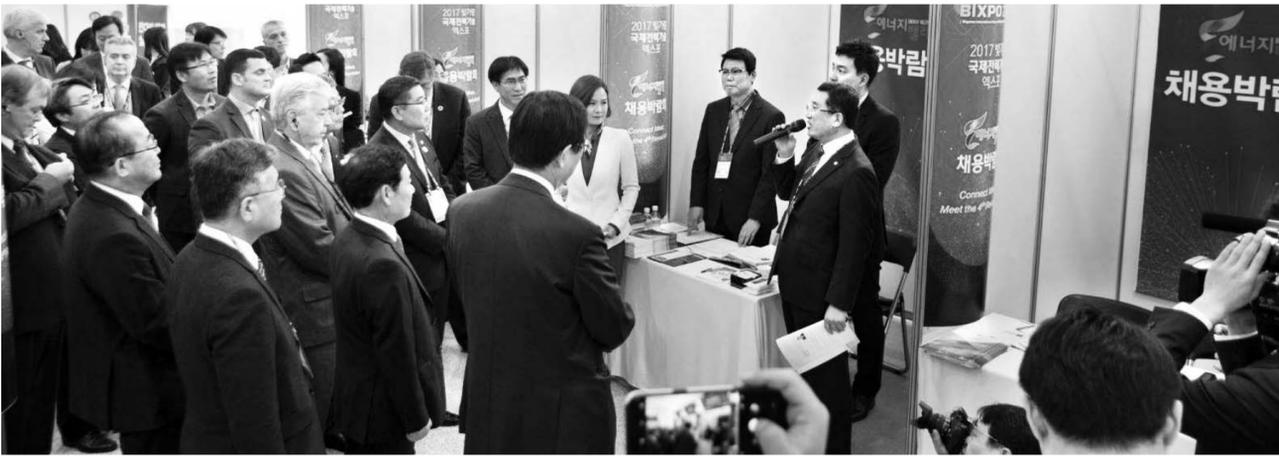


'빅스포' 31일~11월 2일 DJ센터

에너지 신기술 한자리... 현장서 면접·채용



지난해 BIXPO 개막식 날 에너지밸리 채용박람회 현장채용관에서 박람회 참여 기업인 세진엔지니어링 담당자가 행사 참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글로벌 전력기술 종합박람회 신산업 육성 투자·기술 교류 60개 기업 채용박람회 서류·면접 구직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기대

글로벌 전력기술 분야 종합박람회인 제 4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8)의 개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2018 CIO 100 Awards'에서 3년 연속 CIO Awards를 수상한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기업 한전(KEPCO)은 오는 31일~11월 2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18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이하 BIXPO 2018)'를 개최한다.

가람혁신도시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BIXPO는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기술교류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에 처음 개최됐다. 이후 3회를 거치며 BIXPO는 전시 규모와 참가기업 수, 수출 상담 실적 등이 대폭 늘어났고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한전(KEPCO) 외 60개 에너지밸리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BIXPO 2018'의 채용박람회는 전력분야 공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상담관, 중소기업 위주의 현장 채용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관으로 구성된다.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구직자는 물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를 설치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외에 한전(KEPCO),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등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도 개최해 청년 취업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국가산단 '고전'

지난해 50인 미만 업체 가동률 광주 74.6%·전남 72.5%

광주·전남지역 국가산단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규모 영세업체일수록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고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민간 투자자도 없어 수십년된 지역 산단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젊은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국가산단별 가동·분양률, 근로자수·생산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국가산단 내 50인 미만 입주기업 가동률은 74.6%로 전년대

(81.1%)보다 떨어졌다. 소규모 영세업체 가동률 하락세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입주기업들의 가동률 하락세(2016년 77.0% → 2017년 75.3%)보다 훨씬 크다. 전남지역 국가산단도 비슷하다. 지난해 50인 미만 입주기업들의 가동률은 72.5%로 전년대(86.3%)보다 13.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300인 미만 입주업

체 가동률은 80.5%로 1년 전(78.0%)보다 상승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들이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배숙 의원은 "자금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들이 침체된 시장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산단 가동률 저하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74.49 (-35.08) ↑ 금리(국고채 3년) 2.07 (+0.05)
- ↓ 코스닥 789.00 (-5.99) ↑ 환율(USD) 1129.90 (+10.70)

삼성 브랜드 세계 6위·현대차 36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 애플 1위...기아차 71위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4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8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59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5% 늘어나면서 6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12년 9위(329억달러) ▲2013년 8위(396억달러) ▲2014년 7위(455억달러) ▲2015년 7위(453억달러) ▲2016년 7위(518억달러) ▲2017년 6위(562억달러)에 이어 또 다시 10위 내에 들었다.

올해까지 14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이 기간 브랜드 순위는 48계단, 브랜드 가치는 100억달러가 각각 올랐다. 인터브랜드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와 끊임없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노력,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의 출시와 고성능 브랜드 'N'의 출범 등을 높게 평가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기아차도 브랜드 가치가 작년보다 4% 증가한 69억달러로 평가되면서 71위에 랭크됐다. 자동차 분야 순위는 11위였다. 올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 1위는 작년보다 15% 늘어난 2144억8000만달러의 애플이었고, 구글이 10% 증가한 1555억6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업체는 6년 연속 1·2위 자리를 지켰다. 아마존(1천7억6400만달러)은 56%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2계단 오른 3위에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4위·927억1500만달러)와 코카콜라(5위·663억4100만달러), 도요타(7위·534억400만달러), 메르세데스-벤츠(8위·486억100만달러), 페이스북(9위·451억6800만달러), 맥도날드(10위·434억1700만달러) 등이 '글로벌 100대 브랜드'로 선정됐다. 스타벅스(57위), 버버리(94위) 등도 100대 브랜드 명단에 포함됐다.

금호타이어 '일본 굿 디자인' 본상

금호타이어가 일본의 '굿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제품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디자인 공모전으로, 1200명의 디자이너가 제품·공간·미디어·시스템 등 16개 분야에서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며 수상작에는 'G-Mark'가 부여된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 부품 분야에서 프리미엄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72'로 본상을 받았다. WP72는 고급 세단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겨울용 타이어임에도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강력한 제동 성능을 확보했다는 게 금호타이어 설명이다. 측면부에 눈 내리는 풍경과 눈꽃 결정



을 본뜬 형태를 넣어 겨울용 타이어로서의 정체성을 살렸고 저온특성 고무를 사용, 겨울용 타이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타이어의 마모 진행 상태와 잔여 성능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래시계 형태의 안전마모 기호를 적용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